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표지 탐색하기

※ 책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흑등고래'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써 보세요.

⇒

2) 책 제목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를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3)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4)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읽고 물음에 답하면서, 책에 나올 이야기를 짐작해 보세요.

바다는 누가 불을 붙여놓은 것 마냥 온통 붉었다.

바다가 붉은 해를 꿀꺽 삼킨 거 같았다.

아빠는 도근이가 어른이 되면

함께 흑등고래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아빠가 본 흑등고래는 어떤 모습일까?

① 바다가 온통 붉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모두 찾아 쓰세요.

⇒

② '아빠'와 '도근이'가 약속한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①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가) · 찬영이는 모험왕이니 잠수왕이니 떠들어 대는 도근이를 볼 때마다 속이 꼬였다.

- 아빠 글씨를 보자 눈가가 그렇그렁해졌다. 글씨들이 어롱거리 잘 보이지 않았다.
- 여기저기 구겨지고 누렇게 된 상장은 한눈에도 볼썽사나워 보였다.
- 파도 소리와 짹조름한 바다 냄새로만 그곳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았다.
- '도근이가 운다.' / 맨날 해사하게 웃던 도근이었다.

(나) · "니보다 숨 잘 참는 아는 ㉠□□□□ 없을 기다."

- 아이들은 도근이 뒤로 ㉡□□□□ 모여 따라갔다.
- 찬영이는 ㉢□□□□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꼬이다 () 어롱거리다 () 볼썽사납다 () 짹조름하다 () 해사하다 ()

- ① 조금 짠맛이 있다.
- ② 비위에 거슬러 마음이 뒤틀리다.
- ③ 표정, 웃음소리 따위가 맑고 깨끗하다.
- ④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리게 어른거리다.
- 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

2) (나)에 제시된 문맥과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 '세상'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 :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 또는 그런 모양.
- ㉢□□□□ :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②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 (가) ① 복식 호흡은 ()을 늘리는 연습이다.
 ② "범고래 먹이가 흑등고래 새끼면 할 수 없는 거제. 느그들은 ()도 안 배웠나?"
 ③ "니 ()을 똑바로 정해라. 범고래가 좋나? 흑등고래가 좋나?"
 ④ ()에 구긴다는 게 끝부분이 찢어지기까지 했다.
 ⑤ "() 중이다. 예술가들은 원래가 생각이 쪼매 많은 기다."
- (나) · 네모 상자 안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아빠가 마치 ㉠달팽이 같았다.
 · 아이들이 내뿜는 말들이 ㉡별 떼처럼 뿜뿜거리며 교실을 날아다녔다.

1) (가)에 제시된 문맥과 다음 뜻을 참고하여,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환김 : 화가 나는 기회나 계기.
- 먹이사슬 : 생태계에서 먹이를 중심으로 이어진 생물 간의 관계.
- 구상 : 사물, 특히 예술 작품 따위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
- 노선 : 개인이나 조직 따위가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향하여 나아가는 견해의 방향이나 행동 방침.
- 폐활량 : 허파 속에 최대한도로 공기를 빨아들여 다시 배출하는 공기의 양. 신체의 건강 여부를 검사하는 기준임.

2) (나)에서 밑줄 친 ㉠과 ㉡은 각각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찾아 쓰세요.

⇒ ㉠ :

㉡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독해 연습_ 꼬마 잠수왕 / 하늘을 나는 흑등고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흑등고래는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데 당연하지. 아홉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행할 수 있대. 흑등고래는 모험왕이야. 모험왕!"

도근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 "와, 진짜가? 도근이 느그 아빠처럼 말이제?"

아빠가 모험왕이라는 현수 말에 도근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근데 느그 아빠 모험은 언제 끝나노?"

아이들 사이로 찬영이가 고개를 숙 들이밀고 말했다.

"곧 올 거야. 이번 내 생일날 오기로 했으니까."

(나) 도근이는 붓을 들고 흰 도화지 위로 둥근 포물선을 그렸다. 둥그런 선이 곧 고래가 되었다. 그러고는 조금 남은 파란 물감을 알뜰하게 쥐어짜다. 흰색을 섞어서 하늘색을 만들었다. 도화지에는 곧 하늘을 나는 흑등고래 한 마리가 그려졌다.

"고래가 새냐? 하늘을 날게?" / 뒷자리에 앉은 찬영이가 킬킬대며 말했다. 도근이가 찬영이 그림을 보러 하자 찬영이가 얼른 팔로 도화지를 가렸다.

"흑등고래는 하늘을 날 수도 있는 거 너 모르지?"

"뽕까지 마라. 니가 흑등고래 봤나? 본 적도 없으면서 맨날 아는 척이고!"

"아빠가 말해 줬다. 흑등고래가 하늘을 펄쩍 나는 거 봤다고."

1) (가)~(나)에서 '도근이'가 말한 '흑등고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쓰세요.

<p>(가) : 흑등고래는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 며 _____ _____ _____</p>	<p>(나) : 흑등고래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_____ _____ _____</p>
--	---

2)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도근이'와 '아빠'가 처한 상황을 요약하여 쓰세요.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독해 연습_열두 번째 생일 / 흑등고래파 vs 범고래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도근이는 마당 뒷마루에 털썩 걸터앉았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도근이가 달려 나갔다. 우편배달부 김 씨 아저씨였다. / "도근이 생일인갑네. 축하한데이."

김 씨 아저씨가 택배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상자를 받아 든 도근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가 김 씨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도근이는 상자를 마루 한쪽으로 던져놨다.

"내년엔 오실 기다. 기운 내라. 도근아."

김씨 아저씨가 도근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 "흑등고래가 범고래한테서 어떻게 새끼 고래를 보호하는지 아냐? 흑등고래가 등에 새끼를 올려놓고 지느러미로 범고래를 내리친대. 한 대 맞으면 치명타를 입는 거지. 흑등고래는 자기 새끼만 보호하는 게 아니야. 범고래의 공격을 받는 바다표범도 등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준대." / 도근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와 범고래가 악당이고?"

찬영이가 뻑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이 찬영이 쪽을 바라보았다. 다 듣고도 뭘 소리를 하냐는 눈빛이었다. 찬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범고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깐 잡아 묵는 거 아이가? 범고래 먹이가 흑등고래 새끼면 할 수 없는 거제. 느그들은 먹이사슬도 안 배웠나?"

1) (가)에서 '도근이'가 '우편배달부'에게 택배 상자를 받고 실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나)에 나타난 '도근이'와 '찬영이'의 말을 정리하여 써 보세요.

<p>① 도근이 : 흑등고래는 등에 새끼를 올려놓고 _____</p> <p>_____</p> <p>_____</p>	⇔	<p>② 찬영이 : 범고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잡아먹는 것이고, _____</p> <p>_____</p> <p>_____</p>
--	---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독해 연습_세상 알미운 녀석 / 잠수왕 된 지가 언젠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선생님은 어느새 찬영이 코앞에 서 있었다.

"도근이한테 상장 좀 갖다 주그래이. 너는 도근이 앞에서 아이들을 대표해서 크게 박수 쳐 주고 온나. 알았나? 박수쳤는지 내 꼭 도근이한테 물어볼 께다."

선생님은 찬영이한테 도근이 상장을 펴럭이며 건넸다. 찬영이는 놀라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와 하필 나를 시키노? 선생님도 참 알긋다. 맨날 싸운다고 별세운 거 다 잊어뿌린 기가?' / 찬영이는 이 말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랬다면 뒤통수만 얻어맞고 심부름은 심부름대로 해야 할 거다.

(나) "이불 덮지 마요. 우리 할머니 답답한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빠는 버둥거리는 도근이를 뒤에서 꼭 안았다. 아빠의 팔이 떨어 왔다.

기다리던 아빠가 왔는데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눈을 뜨지 않았다.

"할머니 바보야? 아빠가 왔는데 왜 눈을 못 떠? 바보같이....."

도근이는 할머니가 원망스러웠다. 할머니가 아빠를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도근이만큼이나 아빠를 기다리던 할머니였다. 비록 도근이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도근이는 할머니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던 걸 알았다.

1) (가)에 나타난 '선생님'과 '찬영이'에게 벌어진 사건을 정리하여 써 보세요.

<p>① 선생님 : 도근이한테 상장을 갖다 주고, _____</p> <p>_____</p> <p>_____</p>	➔	<p>② 찬영이 : 놀라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_____</p> <p>_____</p> <p>_____</p>
--	---	--

2) (나)에서 '도근이'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왜 원망스러웠나요?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사고력 키우기_감빵왕 즐라맨 / 범고래 악당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도근이는 대문을 열다가 멈칫했다. 담벼락에 붉은색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도근이는 벽을 노려보았다. / '도근이 아빠는 감빵왕'

네모난 감옥 창살 안에 즐라맨 같은 남자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질임에 틀림 없었다. 도근이는 이런 것을 할 녀석은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다.

뒤에서 들려오던 아빠의 구두 소리가 똑 멈췄다. 도근이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아빠가 담벼락의 낙서를 보고 있었다. 아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 새끼 짓이야. 김찬영, 가만 안 뒤!" / 도근이는 올라왔던 언덕길을 향해 돌아섰다.

(나) 아이들은 도근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보다 도근이 아빠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누가 처음 꺼낸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반 아이들이 모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 / "그럼, 그동안 온 소포랑 편지들은 뭐꼬?"

찬영이는 뭔가 잘못된 소문일거라고 생각했다.

"그거야, ㉠우편배달부 김 씨 아저씨랑 도근이 할머니가 도근이를 깜빡 속인 거라 카데. 어른들이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 현수가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다.

1) (가)에서 '도근이'는 담벼락에 붉은색으로 된 낙서를 보고, '찬영이'의 짓이라며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근이'에게 충고해줄 말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현수'가 '반 아이들'에게 한 말 ㉠의 의미를 풀어 쓰세요.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독해 연습_도근이는 걱정 마이소 / 흑등고래의 선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도근이가요, 이따만큼 큰 흑등고래를 그렸는데.....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걸 그렸거든요. 무슨 고래가 하늘을 나냐면, 사실은 그게, 파란 물감이 쪼매 밖에 없어가..... 파란 물감을 빌려달라는데 지가 안 빌려줘서..... 그래가 하늘색을 칠한 건데..... 죄, 죄송합니다." / 찬영이는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다.

그때 흐흑,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도근이 아빠 어깨가 들썩였다.

찬영이는 어른이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 말이나 중얼댄 자기 잘못 같았다.

(나) "찬영아, 돌멩이 다 버렸다. 바다에 던져 버렸어."

도근이의 보물들을 찬영이가 모를 리가 없었다.

"돌멩이 주우러 이 밤에 들어간 기가? 그깟 돌멩이 다시 주우면 된다. 날 밝으면 같이 찾아줄게." / 도근이가 찬영이 앞에서 으허엉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 '도근이가 운다.'

맨날 해사하게 웃던 도근이었다. 도근이 울음소리를 들으니 찬영이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쩌면 도근이는 혼자 저 깊은 바닷속에서 저렇게 자주 울었는지 모른다. 도근이가 울음을 토해 내는 동안 찬영이는 말없이 곁에 있었다.

1) (가)~(나)에 나타난 '아빠'와 '도근이'의 울음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빈칸을 완성하세요.

<p>(가) 아빠 : 도근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큰 흑등고래를 그렸다는 _____</p> <p>_____</p> <p>_____</p>	<p>(나) 도근이 : 자신의 보물인 돌멩이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고 말하고, _____</p> <p>_____</p> <p>_____</p>
--	---

2) (가)와 (나)에서 '찬영이'는 두 등장인물의 울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 (가) :

(나) :



우리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사고력 키우기 **울보 아빠 /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남자는 사람 아이가? 아빠도 울고 싶음 우는 기제. 니도 아빠 닮아 울보 아이가?"
 "아빠가 울보라고? 아빠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니 어렸을 때 아빠 완전 울보였다. 니가 처음 걸음마를 떼서 아장아장 걸을 때도 울고, 세발자전거 타고 씩씩 달릴 때도 울고..... 그때 니 아빠 많이 울었데이....."
 "와, 와 우는데?" / "아빠처럼 니도 다리를 절까 봐 걱정이 많았던 기라.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다고 울고 니한테 미안하다고 울고..... 어찌나 울어 샀는지, 니 아빠 달래느라 내도 힘들었다 아이가....."

(나) 도근이 씨익, 웃고는 흑등고래 등 위로 붓을 놀리기 시작했다.
 "이제 아빠 얼굴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됐다. 오늘 아빠랑 하루 종일 있었거든."
 도근이는 흑등고래 등 위에 아빠를 태웠다. 고래 등에 탔으니 이제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실컷 모험을 떠날 ♻수 있을 거다. 아빠는 진짜 모험왕이 되었다.
 도근이가 크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 "와, 이제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사네!"
 "아, 또 흑등고래 얘기에 시달리는 거 아이가? 지겨워 죽겠다. 고마해라. 쫌."

1) (가)에서 ‘찬영이’는 ‘엄마’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아빠’가 완전 울보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찬영이 아빠가 울보였던 이유를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도근이’가 ‘아빠는 진짜 모험왕이 되었다’고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우리 동네에 흑등고래가 산다

잇츠북 | 이해령 글 / 전명진 그림

정답과 해설

1쪽	<p>1) 생략. 2) (예시답안) 주인공의 동네에 살고 있다는 흑등고래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다.</p> <p>3) (예시답안) 바닷속에서 물방울을 내뿜으며 헤엄치는 흑등고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습을 남자아이가 다양한 색벽을 가진 집들이 모인 동네에서 보고 있다.</p> <p>4) ① 누가 불을 붙여놓은 것, 붉은 해를 꿀꺽 삼킨 것 ② 도근이가 어른이 되면 함께 흑등고래를 보러 가기로 약속함. / 아빠가 본 흑등고래를 도근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일 것 같다.</p>
2쪽	<p>1) (순서대로) ②, ④, ⑤, ①, ③ 2) ㉠ : 세상천지, ㉡ : 삼삼오오, ㉢ : 횡설수설</p>
3쪽	<p>1) ① 폐활량, ② 먹이사슬, ③노선, ④ 핫김, ⑤ 구상</p> <p>2) ㉠ : 네모 상자 안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아빠, ㉡ : 아이들이 내뱉는 말들</p>
4쪽	<p>1) (가) : 아홉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행할 수 있어서 모험왕이라고 할 수 있음 (나) : 흑등고래가 하늘을 펄쩍 나는 것을 봤다고 아빠가 말해 줬음</p> <p>2) 아빠는 모험을 떠나서 도근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도근이의 생일날 오기로 했음</p>
5쪽	<p>1) 아빠가 도근이의 생일에 오기로 했는데, 택배 상자만 와서</p> <p>2) ① 지느러미로 범고래를 내리치며 보호하고, 범고래의 공격을 받는 바다표범도 등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줌 / ② 먹이사슬에 따라 범고래 먹이가 흑등고래 새끼면 할 수 없는 것임</p>
6쪽	<p>1) ① 찬영이가 도근이 앞에서 아이들을 대표해서 크게 박수 쳐 주고 오라고 하며 도근이 상장을 펴리며 건넸음 / ② 왜 하필 자신을 시키는지, 맨날 싸운다고 별세운 것을 잊어버린 것인지 참 알긋다고 생각했음</p> <p>2) 기다리던 아빠가 돌아왔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p>
7쪽	<p>1) (예시답안) ‘도근이 아빠는 감빵왕’이라는 담벼락의 붉은색 낙서를 정말 찬영이가 했는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 단지 졸라맨을 그렸다고 해서 찬영이가 낙서로 장난질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찬영이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p> <p>2) 아빠가 도근이에게 소포와 편지들을 보낸 것처럼 우편배달부 김 씨 아저씨와 도근이 할머니가 도근이를 깜빡 속인 것임</p>
8쪽	<p>1) (가) : 찬영이의 말을 듣고,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음 (나) : 찬영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며 울었음</p> <p>2) (가) : 어른이 우는 것을 처음 보아서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몰랐음 (나) : 자신도 눈물이 날 것 같았음</p>
9쪽	<p>1) (예시답안) 아빠는 자신처럼 찬영이가 다리를 절까 봐 걱정해서 걸음마를 떼었을 때나 세발자전거를 탔을 때 울었던 것이다. 아빠는 건강하게 자란 찬영이에 대해 고마워하며 미안해한 것이다. 남자도 사람이고, 아빠도 울고 싶으면 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2) 도근이가 아빠를 흑등고래 등 위에 그러서 아빠가 고래 등에 탔으니 이제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실컷 모험을 떠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p>